

대학생 애착과 부모 부양의지: 자식됨 불안(filial anxiety)의 효과

김민희 홍주연*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본 연구는 대학생의 미래 부모 부양의지에 미치는 애착불안, 애착회피, 자식됨 불안의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서울과 강원도 소재의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242명(남자 108명, 여자 24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애착과 부양의지의 관계에서 자식됨 불안의 두 차원인 부모노화불안과 부양역할불안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모형검증 결과 애착불안이 부양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부양역할불안이 완전 매개 하였으며, 부모노화불안은 애착불안과 부양의지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애착회피가 부양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노화불안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양 연구에서 애착과 자식됨 불안의 역할을 논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양부담 완화를 위한 제언, 연구의 제한점, 그리고 미래 연구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주요어: 대학생, 부양의지, 자식됨 불안, 애착불안, 애착회피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만성질환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만성질환으로 기능이 감퇴된 노부모를 돌보는 일은 많은 가족의 몫이다(Stephens & Franks, 2009). 실제로 부양이 필요한 노인들 중 37%는 동거 및 비동거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정경희, 2005).

부모가 자식에게 의존하게 되는 상황에서 대부

분의 성인 자녀들은 부양 역할에 잘 적응한다(Brody, Johnsen, & Fulcomer, 1984; Cicirelli, 1988). 그러나 그들이 자식으로서 얼마나 성숙하게 이 역할을 수행하는지는 의문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인 자녀들은 미래의 요구 상황에서 자신들의 부모에게 단지 제한된 헌신만을 하려고 하며,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도움을 덜 제공하려고 한다(Cicirelli, 1981). 또한 부양부담 문헌들(Zarit

* 교신저자: 홍주연, E-mail: cyhong65@kcggu.ac.kr

& Zarit, 1983)을 보면 많은 성인 자녀들이 노부모의 요구를 충족시켜드리는데 금전적, 심리적 혹은 신체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일부 사람은 객관적 기준에서 볼 때 적은 양의 부양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큰 부담감을 느낀다. 반면 어떤 부양자들은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힘든 부양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부양이 부양자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부양자들에 따라 매우 차이가 나며, 부양상황에 대해 적응하는 능력도 부양자들마다 다르다고 보고되고 있다 (Alspaugh, Stephens, Townsend, Zarit, & Greene, 1999; Danhauer, McCann, Gilley, Beckett, Bienias, & Evans, 2004; Gaugler, Davey, Pearlin, & Zarit, 2000; Schulz & Williamson, 1991).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유사한 부양 상황에 잘 적응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경험하는가? 이와 같은 부양부담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다. 부모 자녀 간 근접성, 부모의 의존도, 부양자의 개인적 특성과 피부양자인 노부모의 특성, 형제 지원이나 사회적 지원 같은 상황 요인들에 따라 부양자가 경험하는 부양부담은 달라지지만 (Hooker, Monahan, Bowman, Frazier, & Shifren, 1998), 부모 자녀 간 정서적 관계를 반영하는 안정된 특질인 애착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이 부양에 보다 지속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Blieszner, 2006; Cicirelli, 1993, Fingerman, Pitzer, Lefkowitz, Birditt, & Mroczek, 2008; 조운주, 이숙현, 2004). 실제로 부모와 더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녀가 부모와 근거리에서 거주하며, 자주 방문하고, 전화도 더 빈번하게 한다 (Cicirelli, 1983).

부양은 부양자 한쪽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고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정도의 질병과 의존도를 가진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부양자와 피부양자와의 정서적 관계에 따라 부양자가 느끼는 부담은 달라진다. 특히 정서적 관계의 근간이 되는 애착은 부담을 주는 사건에 대한 대처 방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피부양자와 관계가 양호한 사람은 돌보는 것이 힘들어도 부모를 모시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다 (Mikulincer & Orbach, 1995; 김혜경, 2004). 이처럼 부양에 있어서 부모-자녀 관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Allen, Blieszner와 Roberto (2000)에 따르면 가족 부양 영역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불과 10% 미만이다.

그런데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도 부양부담을 경험한다는 연구들이 있다. Cicirelli(1981)는 성인 자녀들이 부모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경험하는 신체적 긴장과 부정적 느낌에 관해 조사하였다. 흥미로운 결과는 실제로 도움을 전혀 제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자녀들이 상당한 신체적 피로감과 부정적 느낌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감정을 좀 더 탐색해 보았더니, 성인 자녀들은 미래에 요구될지도 모르는 도움과 자신들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걱정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Cicirelli, 1981). Cicirelli(1988)는 이처럼 부모의 기능 감퇴 및 죽음, 그리고 부모의 부양 요구에 대해 예상되는 자식의 부양에 관한 불안을 자식됨 불안 (filial anxiety)*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것이 부양의 의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였다.

출산율의 저하, 초산연령의 증가, 그리고 평균수명의 연장(통계청, 2010)으로 인해 현재 대학생인

* filial anxiety은 일부 연구자들이 효불안으로 번역하기도 하였으나, 본 연구자들은 자식됨 불안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았다.

자녀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 빨리 더 오랜 기간 부양을 담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본격적인 부양행동이 시작되기 전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향후 부양역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은 중요하다.

성인기 애착과 부양

성인기 애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면서 현대 애착 이론가들은 애착을 두 개의 차원으로 구성된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로 설명하였다. 이중 한 차원은 자기에 대한 모델로 내면화된 자신의 가치감을 의미하고, 다른 한 차원은 타인에 관한 모델로 타인의 유용성과 지지에 대한 기대를 의미한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Griffin & Bartholomew, 1994).

구체적으로 자기에 대한 모델은 애착불안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애착 대상으로부터 보살핌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하는 것이며, 타인에 관한 모델은 애착 회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이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친밀함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껴 애착 대상과의 신체적, 정서적 거리를 두려는 경향을 말한다. 따라서 안정 애착인 사람들은 이 두 차원 모두가 낮은 사람이다(Brennan, Clark & Shaver, 1998). 이후 성인애착에 관한 경험적 연구결과들은 성인 애착의 두 차원을 일관적으로 보여주었고(Fraley & Waller, 1998), 연구자들은 애착의 이차원 모델에 기반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Arbona & Power, 2003; Brennan, Clark & Shaver, 1998; Fraley, Waller & Brennan, 2000). 현재는 많은 성인애착 연구들이 이차원 모델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Gallo, Smith, & Ruiz, 2003; Lopez, Mitchell, & Gormley, 2002; Wei, Mallinckrodt,

Russell, & Abraham, 2004). Fraley와 Waller(1998)는 애착 유형론을 비판하면서 애착을 유형이 아닌 차원으로 분석하였을 때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haver, Belsky, & Brennan, 2000).

친밀한 관계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영아들은 애착 대상과의 신체적 접촉이 필요하지만, 성인기에 이르면 애착을 유지하는데 이러한 행동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Cicirelli(1991)는 영아기의 근접성 추구 모델이 성인기가 되면 상징적 애착체계(symbolic attachment)로 대체된다고 설명하였다. 즉, 성인이 되면 과거 부모와 함께 했던 경험을 기억하거나 서로 공유하는 내면화된 가치나 관심을 떠올림으로써 애착을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애착 대상에 대한 내적 작동 모델은 아동기 초기에 형성되어 전 생애 동안 가까운 대인 관계의 기초를 형성한다(Mikulincer & Shaver, 2007).

성인기 애착의 특징 중 하나는 보호적 행동의 발달이다. 애착 행동은 대상과의 근접성 유지에 중점을 두는 반면 보호적 행동(protective behavior)은 근접성을 넘어 위협받는 애착 대상의 존재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애착 대상이 곤경에 처하면 애착 대상의 생존과 정서적 유대의 보존을 위해 도움행동을 제공하게 된다(Karantzias, Evans, & Foddy, 2010; Mikulincer & Shaver, 2007). Cicirelli(1993) 그리고 Mikulincer와 Shaver(2007)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애착 유대를 위협하는 상황은 자녀가 부모를 돕도록 동기화됨으로써 애착 유대를 보존하게 만들고 부모의 상실을 가능한 한 지연시켜주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Finzi, Har-Even, Weizman, Tyano, 와 Shnit(1996)는 성인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자녀의 애착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제안하면서 부모 부양을 설명하는 주된 이론 중의 하나로 애착 이론을 언급하였다.

안정 애착의 정도는 미래의 부양 역할을 수용할 것인지의 여부와 부양에 대비하는 성인 자녀의 준비성과 정적인 상관을 가진다(Cicirelli, 1983; Sörensen, Webster & Roggman, 2002). 이와 유사하게 다른 연구들도 애착안정은 부양과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부양부담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임을 발견하였다(Carpenter, 2001; Crispi, Schiaffino, & Berman, 1997; Magai & Cohen, 1998). 즉, 애착안정은 성인 자녀가 부모를 보호하고 돌보는 것에 대해 부담을 덜 느끼도록 만들고 실제 부양 경향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대학생 커플들을 대상으로 한 Collins와 Feeney (2000)의 연구에서 불안정 애착인 사람들은 부양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안정 애착인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부양이 필요한 사람의 욕구보다 우선시하기 때문에 부양을 힘들어 하며, 또한 이러한 자기-초점적 불안으로 인해 애착대상에 대한 주의가 분산되어 애착 대상에게 필요한 민감한 지지와 반응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불안정 애착인 사람들이 보이는 부양 시도는 애착 대상과의 근접성을 유지하려는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

애착과 부모 부양에 대해 살펴본 국내 연구에서도 의무감보다는 애착과 갈등 같은 주관적인 유대관계가 부모 부양의식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임춘희, 1988), 최정혜(1992)는 성인자녀와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높을수록 부양의사가 높다고 하였다.

최근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성 및 부모와의 애착 정도와 부양의지를 본 조운주와 이숙현(2004)의 연구에서 부모와 애착이 강할수록 부모부양에 대해서 적극적이었으며, 조운주(2009)는 부모와 이성과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부모 부양의무감이 높았다.

애착의 두 차원인 애착불안, 애착회피와 부양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애착회피는 일관적으로 부양과 부적인 관계를 보여준다(Collins & Feeney, 2000). 회피적 성향이 높은 사람은 친밀한 것에 대해 불편해하고, 과도하게 자기를 신뢰하고, 공감능력이 부족한데, 이것이 민감하고 반응적인 부양을 제공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Gillath, Shaver, Mikulincer, Nitzberg, Erez, & van IJzendoorn, 2005; Mikulincer & Shaver, 2007). Karantzias, Evans와 Foddy(2010)의 연구에서 애착회피는 부양부담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고 미래 부양 의지와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와 유사하게 애착 불안도 부양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예를 들어, Feeney와 Hohaus(2001)의 연구에서 애착불안이 높은 사람은 부양 과제를 잘 다루지 못하며 자신에게 의존하는 배우자를 돌보려고 하지 않는다.

Hart, Shaver와 Goldenberg(2005)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부모가 나쁜 건강 상태에 있다고 상상하라고 요구하였을 때, 미래 부양을 제공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보호적 행동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적 행동은 애착의 질에 따라 상이하였다. 애착회피가 높은 학생들은 보호적 행동과 생각이 모두 낮았으며 애착불안이 높은 학생들은 보호적 행동은 비슷하였지만 보호적 행동에 대한 스트레스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모두 낮은 안정된 애착감은 보호적 생각과 행동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애착이라는 정서적 관계와 부모 부양을 살펴본 연구들의 공통된 결과는 애착의 질이 부양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성인기 애착, 자식됨 불안 그리고 부양

성인 중기 및 후기에 이르러 부모의 활력이 감소하고 부모가 다양한 질병을 호소하게 되면 성인 자녀는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부모를 지키려고 한다. 그러나 자신이 죽음의 필연성으로부터 부모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끊임없는 불안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자식으로서의 불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식됨 발달(filial development) 단계를 이해해야 한다(Cicirelli, 1988). 자식됨 발달은 수명의 증가로 인해 다시 주목받게 된 Blenkner(1965)의 개념으로, 자식으로서 최상의 발달을 이루게 되면 자식됨 성숙(filial maturity)에 이르게 된다. 그에 따르면 부모가 노화하게 되면 자식으로서의 책임을 경험하게 되는 자식됨 위기(filial crisis)가 시작되는데 이를 통해 자식됨 성숙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 자식됨 성숙 단계에 이르게 되면 초기의 부모-자녀 관계와는 다르게, 성인-성인 관계의 맥락 내에서 혹은 거꾸로 나이든 부모는 아이가 되고 성인 자녀는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 전환이 일어나 성인 자녀들이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관점을 취하게 된다. 이 단계의 성인 자녀는 부모를 부모 역할과는 구분되는 개인적인 욕구와 목표를 가진 한 개인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때 부모의 의존요구가 생기면 성숙한 성인 자녀는 부모를 부양하게 된다.

Blenkner(1965)의 자식됨 성숙의 개념에 기초하여, Cicirelli(1988)는 나이든 부모의 의존적 요구가 증가되면 자식됨 불안(filial anxiety)의 수준이 높아지고 부양책임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감소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자식됨 불안은 자식으로서 성숙한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불안은 성숙한 자식으로서 발달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식됨 불안이 자식됨 성숙 발달 단계의 간접적 측정치로 사용될 수 있다(Cicirelli, 1988). 또한 자식됨 성숙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자식됨 불안이므로, 자식됨 불안의 수준은 성인 자녀의 나이에 따라 변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젊은 성인들은 단지 부모가 노화하고 있고 점차로 의존적이 되어 부모-자녀 관계가 변하려고 한다는 것을 인식만 하여도 자식됨 불안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불안은 부양역지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성인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자식됨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Cicirelli(1988)는 나이든 부모의 노화와 그러한 부모를 보호하려는 자녀의 능력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포함하는 문항들을 사용하여 자식됨 불안척도(Filial Anxiety Scale, FAS)를 개발하였다. FAS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자식으로서의 부양 능력에 대한 불안을 반영하는 부양역할불안 요인과 나이 들어가는 부모의 안녕에 대한 불안을 나타내는 부모노화불안의 두 개의 하위요인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FAS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성인 자녀의 부양 행동을 탐색하는데 FAS가 유용한 연구 도구임이 지지되었다. 이후 수행된 부양역할불안과 부모노화불안의 타당화 연구(Murray, Lowe, Anderson, Home, Lott, & MacDonald, 1996)에서는 부양역할불안과 부모노화불안 점수는 특질 불안 점수와 낮기는 하지만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고 어머니와 아버지 부양과 관련된 상태 불안과는 높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자식됨 불안 척도를 사용한 연구 결과들에서 자식됨 불안척도의 하위요인인 부양역할불안과 부모노화불안이 타당함을 보여주었다.

장기간 지속되는 부양 상황에서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관계 속성에 관해 조사한 연구들은 관계의 질이 제공되는 부양의 결과 관련이 있음을 일관적

으로 보여주고 있으며(Cavanaugh & Kinney, 1994), 자식됨 불안이 부모-자녀 간 애착과 부양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식됨 불안은 자녀의 부양 동기나 부양 행동과 어떤 관련을 가질 것인가? Cicirelli(1993)는 중간 정도의 자식됨 불안이 강한 부양 동기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높은 불안이 부양 행위를 회피하게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Bradley, Miller, Murtha, Parkinson과 Phend Horst(2008)의 연구에서 높은 자식됨 불안이 부양에 대한 생각과 실제 부양 계획을 감퇴시키지 않았으며 중간 정도의 자식됨 불안이 부양에 대한 생각이나 계획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자식됨 불안과 부양 태도, 생각, 계획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자식됨 불안척도 내 상호 상관이 매우 낮은 부양역할불안과 부모노화불안의 두 하위 요인의 점수를 분리하지 않고 단일 점수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를 각각 분리하여 분석해 본다면 자식됨 불안과 예상되는 부양에 대한 태도나 생각 사이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식됨 불안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애착에서 파생된 개념이므로 자식됨 불안이 예상되는 미래 부양에 대한 생각이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보다는 애착을 매개, 또는 조절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어떻게 애착이 성인 자녀의 부양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이는 이전 연구들이 실제 부양 경험을 강조함으로써 실제 부양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성인들의 부양에 대한 의지와 행동에 애착 역동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부양 연구자들은 부모-자녀 간 부양

연구가 아프거나 연로한 노부모를 돌보는 부양자를 연구하는 것보다는 건강이 좋은 부모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부양에 대한 준비 과정을 통해 정규적인 가족 부양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Roberto & Reynolds, 2001).

또한 자식됨 불안은 현재 부양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미래에 있을 부모부양에 대한 스트레스를 보이는 성인 자녀들에 대한 관찰을 통해 제안된 것이다. 따라서 Cicirelli(1988)의 자식됨 불안의 개념은 자식됨 성숙의 발달적 과제에 가까워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유용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한 안정된 특질인 애착, 자식됨 불안, 부모 부양의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자녀의 애착이 부모 부양의지(예기된 부양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에 있어서 자식됨 불안이 매개 혹은 조절의 기능을 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부양은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Uhlenberg(1996)는 ‘자력으로 기본적 활동이나 도구적 일상생활능력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도움’으로 정의하였고, 최근 국내에서는 ‘질환이나 장애로 인해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운 가족 및 친지에게 제공하는 비일상적인 경제적, 정서적, 도구적 지원’으로 정의하였다(윤성은, 2002).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부양을 ‘부모와의 동·별거와 관계없이 부모가 만성장애나 질환으로 인해 취약해진 경우, 경제적, 정서적, 도구적으로 장기적 도움을 제공하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아울러 부양의지를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태도로 객관적인 부양과업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주관적인 부담감을 경험하면서 부양자가 미래 부양을 수행하려는

의지'로 보았다. 특히 부양의지는 현재노인에게 부양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노부모가 부양을 필요로 할 경우, 부양을 제공할 미래의 부양의도를 의미하는 것이다(이현지, 2007).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부양 주체인 젊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부양의지가 보다 더 적합한 요인이다.

애착과 부모 부양을 살펴본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애착이 부양태도에 영향을 미치며(Cavanaugh & Kinney, 1994), 부양행동과도 상관을 가진다(Pruchno, Peters, Kleban, & Burant, 1994)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식됨 불안의 두 요인인 부모노화불안과 부양역할불안은 성인기 애착의 상징적 애착체계의 산물로서 애착불안, 애착회피와의 상관이 있으며(Cicirelli, 1991), 자식됨 불안은 부양태도에 영향을 미친다(Cicirelli, 1991; Murray, Lowe, Anderson, Home, Lott, & MacDonald, 1996).

애착의 두 차원과 부양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애착회피의 특징인 거리두기는 애착 대상의 요구에 공감적, 연민적 반응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Fraley & Shaver, 1997; Westmass & Silver, 2002), 따라서 애착회피 성향이 높은 사람은 부양에 대한 동기가 낮을 것이다(Kim, Carver, Deci, & Kasser, 2008). 또한 애착회피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부모와 이야기하지 않고 부모의 가치를 성공적으로 내면화할 기회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부모의 안녕감에 대해 걱정을 적게 하며(Wang, 2007), 이로 인해 부양의지가 낮을 것이다. 부모와의 애착불안은 상태적 불안과 특질적 불안 모두와 정적인 상관을 가지며(Myers & Cavanaugh, 1995), 애착 불안이 높은 사람은 친밀한 관계에서 버림받는 것에 대해 민감하고 이에 대해 걱정하는 것과 정적인 관련이 있으므로(Shaver & Mikulincer,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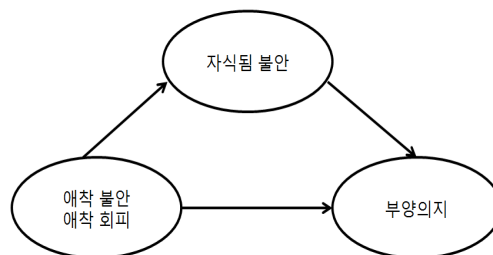


그림 1. 자식됨 불안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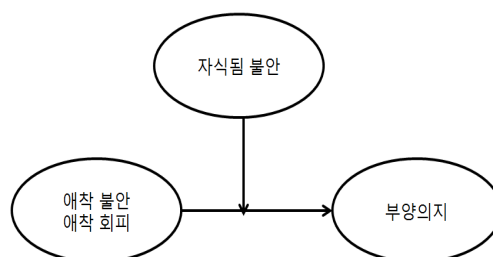


그림 2. 자식됨 불안의 조절효과

애착불안은 부모노화에 대한 불안과 정적 상관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들을 볼 때 본 연구자들은 애착과 부양의지의 관계에서 자식됨 불안이 매개 혹은 조절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에 대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 첫째, 자식됨 불안은 애착불안 혹은 애착회피가 부양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즉, 애착불안 혹은 애착 회피가 부양역할불안과 부모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부양 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애착불안 혹은 애착회피가 부양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자식됨 불안이 조절할 것이다. 즉, 애착불안 혹은 애착회피가 부양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부양역할불안과 부모노화불안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검증하고자 하는 모형은 그림 1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서울과 강원도 소재의 대학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350명 이었다.

이 중 여자는 242명, 남자는 108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21.30세(SD=3.06)였다. 설문 참가자는 현재 부모가 생존해있고 부양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대학생으로 제한되었다. 설문조사는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는데, 우선 연구자가 직접 연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였고, 이후 설문지에 응답하게 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 정도였으며, 연구에 참가한 대학생들에게는 추가 학점을 부여하였다.

측정도구

자식됨 불안 척도(Filial Anxiety Scale, FAS)

Cicirelli(1988)는 성인 자녀들이 나이 들어가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 부양과 관련된 불안을 경험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자식됨 불안 척도를 개발하였다. Cicirelli는 성인부양자가 나이 들어가는 부모에게 일어나는 감퇴들을 지켜보는 것과 관련된 불안과 부모님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는 결과로 성인 자녀 부양자가 책임져야 하는 예상되는 요구가 많아지는 것과 관련된 불안에 초점을 두었다. 자식됨 불안 척도(FAS)는 13문항의 2요인으로 이루어진 척도로 첫 번째 요인은 부양역할불안(filial anxiety A, FAA)으로 부양 역할을 수행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성인자녀의 불안을 반영한다. 즉, 지각된 부양 역할 요구를 심리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관한 부양자의 불안이다.

두 번째 요인은 부모노화불안(filial anxiety B, FAB)으로 나이 들어가는 부모의 안녕에 대한 성인자녀의 불안을 반영한다.

Cicirelli(1988)의 연구에서 부양역할불안과 부모노화불안의 내적 일치도는 각각 .88과 .77이었고, 부양역할불안과 부모노화불안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각각 .69와 .61이었는데 이것은 연구에 사용되기 위해 수용할만한 수준이다(Nunnally, 1967). 두 개의 하위요인은 서로 .32의 상관을 보이는데 이는 분리된 차원으로 여겨질 만큼 두 요인이 서로 독립적임을 의미한다. 이전 연구들에서 자식됨 불안 척도는 성인 자녀의 부양 행동 연구에 유용한 연구 도구가 될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진 척도로 확인되었다(Cicirelli, 1988; Murray, Lowe, Anderson, Home, Lott, MacDonald, 1996; Myers & Cavanaugh, 1995). 부양역할불안의 예 문항은 ‘부모님이 큰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부모님을 반드시 보살펴야만 하는 때가 올 것 같아 두렵다’이고, 부모노화불안의 예 문항은 ‘부모님의 연세가 점점 많아지면서 오랜 기간 떨어져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다’, ‘부모님에 대한 염려에 마음이 항상 편치 않다’이다.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해당하는지를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게 하였으며(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은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식됨 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식됨불안척도(FAS)의 Cronbach's α 는 부양역할불안이 .85이고, 부모노화불안이 .69이다.

애착

성인기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친밀관계 경험검사 개정판(ECR-R)의 한국어판(김성현, 2004)을 사용하였다. ECR-R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Scale-Revised; Fraley, Waller, Brennan, 2000)은

ECR(Brennan, Clark, Shaver, 1998)을 발전시킨 자기 보고형 측정도구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두 가지 차원으로 성인애착을 측정하는 검사도구이다.

김성현(2004)은 ECR-R을 우리말로 번안하여 확장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ECR-R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두 차원이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도 적합한 요인구조임을 확인하였다. ECR-R은 총 36개의 문항으로 애착불안을 측정하는 18문항과 애착회피를 측정하는 18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애착불안의 예 문항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을까봐 자주 걱정 된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칠까봐 걱정 된다'이다. 애착회피의 예 문항은 '다른 사람들에게 속내를 털어놓는 것이 편하지 않다',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어렵다'이다.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해당하는지를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게 하였으며(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은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Cronbach's α 는 애착불안이 .92이고 애착회피가 .89이다.

부양의지

대학생들의 미래 부모님에 대한 부양의지는 Abell(2000)에 의해 개발된 부양의지척도(Willingness to Care Scale: WCS)를 이현지(2007)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부양의지는 피부양자에 대해 정서적, 신체적,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비공식적 부양자의 태도로 정의된다(McDonell, Abell, & Miller, 1991). 부양의지를 측정하는 것은 미래에 질병상태에 있는 사람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예상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부양자 부담과는 다르다. WCS는 정서적 측면의 부양,

신체적 측면의 부양, 도구적 측면의 부양인 3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요인에 10개씩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적 부양의 예 문항은 '부모님이 우울해하시면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부모님이 화가 나면 이야기를 들어드릴 것이다'이다. 도구적 부양의 예 문항은 '부모님의 생활비를 지원해드릴 것이다', '부모님의 빨래를 해드릴 것이다'이다. 신체적 부양의 예 문항은 '부모님이 스스로 할 수 없을 때는 대소변 처리를 해드릴 것이다', '부모님이 목욕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이다. 이현지(200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정서적 부양의 Cronbach's α 는 .91, 도구적 부양의 Cronbach's α 는 .90, 신체적 부양의 Cronbach's α 는 .93이고 척도의 전체 Cronbach's α 는 .96이다.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해당하는지를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게 하였으며(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은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양자의 부양의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 건강수준, 경제수준, 형제의 수, 종교에 대해 측정하였다.

결 과

애착, 자식됨 불안, 부양의지의 관계

애착의 두 차원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자식됨 불안의 두 차원인 부양역할불안과 부모노화불안, 그리고 부양의지의 상관결과를 보면, 애착불안은 애착회피($r = .258, p < .01$), 부양역할불안($r = .365, p < .01$), 부모노화불안($r = .168, p < .01$)과는 정적상관을 보이고, 부양의지($r = -.152, p < .01$)와는 부적

표 1. 애착, 자식됨 불안, 부양의지 평균과 상관

변인	애착불안	애착회피	부양역할불안	부모노화불안	부양의지
애착불안		.258**	.365**	.168**	-.152**
애착회피			.226**	-.104	-.279**
부양역할불안				.140**	-.401**
부모노화불안					.346**
부양의지					
평균(M)	2.652	2.719	2.611	3.057	4.166
표준편차(SD)	.653	.587	.772	.696	.583

** $p < .01$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자식됨 불안의 두 차원 모두가 높으며, 부양의지는 낮았다. 애착회피는 부양역할불안과는 정적 상관($r = .226, p < .01$)을 보였지만, 부양의지와는 부적 상관($r = -.279, p < .01$)을 보여 애착 회피가 높을수록 부양의지가 낮았다.

자식됨 불안 중 부양역할불안은 부양의지와 부적상관을($r = -.401, p < .01$), 부모노화불안은 부양의지와 정적 상관($r = .346, p < .01$)을 나타냈다. 자식됨 불안의 두 요인인 부양역할불안과 부모노화불안은 정적 상관($r = .140, p < .01$)을 보여, 부모의 신체적 감퇴에 대한 걱정이 커질수록 부양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염려가 커졌다.

이는 부양역할불안과 부모노화불안의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았던 외국의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Cicirelli, 1988). 애착 불안, 애착 회피,

부양역할불안, 부모노화불안, 그리고 부양의지 간 상관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애착-부양의지 관계에서 자식됨 불안의 역할

본 연구자는 애착이 부양에 대한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자식됨 불안이 그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애착의 두 차원 각각이 부양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식됨 불안의 두 요인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애착이 부양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식됨 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따랐다. 앞서 살펴본 관련 변인들의 상관분석에서 애착회피와 부모노화불안 간 상관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 애착회피가 부양의

표 2 애착 불안과 부양의지와의 관계에서 부양역할불안의 매개효과

		R^2	F	B(β)
1단계	애착불안-부양역할불안	.133	53.539***	.432(.365)***
2단계	애착불안-부양의지	.023	8.256**	-.136(-.152)**
3단계	애착불안-부양의지	.161	33.207***	-.006(-.007)
	부양역할불안-부양의지			-.301(-.388)***

** $p < .01$ *** $p < .001$

표 3. 애착 회피와 부양외지와 관계에서 부양역할불안의 매개효과

		R^2	F	$B(\beta)$
1단계	애착회피-부양역할 불안	.051	18.644***	.296 (.226)***
2단계	애착회피-부양외지	.078	29.312***	-.277(-.279)***
3단계	애착회피-부양외지	.198	42.829***	-.197(-.198)***
	부양역할불안-부양외지			-.269(-.356)***

*** $p < .001$

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노화불안의 매개효과 분석은 제외하였다.

Baron과 Kenny(1986)에 따르면,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세 단계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첫째,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둘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셋째,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이 추가 되었을 때 그 영향력이 줄어들어야 한다. 이를 부분매개 효과라고 한다. 만약 매개변인이 추가되었을 때,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직접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을 때는 완전매개 효과를 가진다.

애착 불안이 부양외지에 미치는 영향: 부양역할 불안의 매개효과

애착불안이 부양외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양역할 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과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애착불안은 매개변인인 부양역할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애착불안이 종속변인인 부양외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3단계에서 부양역할불안이 매개변인으로 투입되었을 때, 부양역할불안은 부양외지에 유의미

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애착불안이 부양외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라졌다. 따라서 애착의 불안 차원은 부양역할에 대한 불안을 완전 매개하여 부양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애착 불안이 강할수록 부모를 부양하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불안이 높으면서 부양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Sobel test 결과, 부양역할불안의 매개효과는 $-5.46(p < .001)$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불안과 부양외지 경로에서 부양역할불안의 매개효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애착 회피가 부양외지에 미치는 영향: 부양역할 불안의 매개효과

두 번째, 애착회피가 부양외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양역할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과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우선 애착회피가 부양역할불안에 영향을 주고 애착회피는 부양외지에 영향을 미치고, 부양역할불안은 부양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개변인인 부양역할 불안이 투입되었을 때 애착회피가 부양외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감소하였다.

Sobel test 결과도 부양역할불안의 매개효과가 $-3.69(p < .001)$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애착회피가 부양역할에 대한 불안을 부분매개하여 부

표 4. 애착회피가 부양의지에 미치는 효과: 부모노화불안의 조절효과

		R^2	F	$B(\beta)$
1단계	애착회피	.078	29.312***	-.136(-.152)**
2단계	애착회피	.101	37.848***	-.193(-.216)
	부모노화불안			.320 (.382)
3단계	애착회피	.198	28.668***	-.774(-.769)***
	부모노화불안			-.261(-.219)
	애착회피 * 부모노화 불안			.757(.174)**

** $p < .01$, *** $p < .001$

양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회피하는 애착 성향이 강할수록 부모를 부양하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며 이는 부양의지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양역할불안의 부분매개효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한편, 애착불안과 부양의지와 관계에서 부모노화불안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경우에 독립변인인 애착불안이 종속변인인 부양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개변인인 부모노화불안이 투입되었을 때 오히려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노화불안은 애착불안과 부양의지를 매개하지 않는다.

애착이 부양의지에 미치는 영향: 조절효과 분석

애착불안이 부양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양역할불안과 부모노화불안이 조절변인으로서 작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애착불안-부양의지 경로에서 부양역할불안과 부모노화불안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애착회피가 부양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양역할불안과 부모노화불안의 조절효과를 분석해보았더니, 애착회피-부양의지 경로에서 부모노화불안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즉, 부양의지에 대해 애착회피의 주

효과는 부모노화불안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애착회피-부양의지 경로에서 부모노화불안의 조절효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논 의

우리나라에서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기는 했으나 그 대상을 중증 노인으로 제한되고 있어 고령인구의 4.2%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윤현숙, 2010) 유사한 노인복지정책을 먼저 실시한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노인 부양의 많은 부분이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김혜경, 2004) 가족 부양과 관련된 연구들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더욱이 초산 연령의 증가와 출산율의 저하, 그리고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세대 구조의 변화로 부모에게 부양을 제공해야 하는 부양자의 연령은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부모 부양 역할에 대해 성인기 초기에 있는 대학생 자녀들의 부양의지와 지속적인 부양에 대한 자녀들의 헌신에 기여하는 안정적인 요인들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부모-자녀 관계 질의 핵심인 성인 자녀의 애착이 부양 관련 태도 중 하나인 부양의지와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관계에서 자

식됨 불안(filial anxiety)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자는 애착, 자식됨 불안, 부양태도에 관한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생 자녀의 애착이 부양인지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이 관계에서 자식됨 불안이 매개 혹은 조절 역할을 할 것이라는 모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따른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의 두 차원과 자식됨 불안의 두 차원 그리고 부양인지의 상관관계를 보면, 애착불안은 애착회피, 부양역할불안, 부모노화불안과는 정적상관을 보이고, 부양인지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애착의 불안차원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연로해져 가는 것에 대해 더 많이 걱정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부양책임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도 높음으로 불안차원의 점수가 높아질수록 부양인지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애착 불안이 미래 부양 의지와 부적적으로 관련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 연구(Crispi, Schiaffino, & Berman, 1997; Sörensen, Webster, & Roggman, 2002)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Crispi 등(1997)은 애착불안이 높은 경우, 부모의 부재에 대해 집착하게 되며 부모의 노화를 목격하게 되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어 부모와 거리를 두게 된다고 하였다. 또, Sörensen 등(2002)은 애착불안이 높은 자녀들이 더 많은 부양부담을 경험하였으며 애착불안이 낮은 자녀는 애착 대상을 자신이 보살펴야 할 대상으로 지각하여 미래 부양 대책들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 편안하게 느낀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최근에 실시된 Karantzias, Evans와 Foddy(2010)의 연구에서는 애착불안이 미래 부양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그들의 가설이 지지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Karantzias 등(2010)은 자신들의 연구가 건강상태

가 좋은 부모를 둔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본 연구자들은 Karantzias 등(2010)이 미래 부양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가 세분화되지 않은 전반적인 부양 의무감을 재는 척도였기 때문에 미래의 부양인지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부양행동들에 대한 의지를 묻는 부양 의지척도를 사용하였고, 그 결과 애착 불안이 부양 의지와 부적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애착회피는 부양역할불안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부모노화불안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부양인지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애착 회피 점수가 높을수록 부양역할에 대한 걱정과 불안은 높고 부양인지도 낮지만, 부모노화에 대한 불안과는 유의미한 관련이 없었다.

셋째, 자식됨 불안 중 부양역할불안은 부양인지와 부적상관을, 부모노화불안은 부양인지와 정적 상관을 보여 부양역할에 대한 불안이 높을수록 미래 부양에 대한 의지는 낮은 반면, 부모의 노화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할수록 미래 부양에 대한 의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현재 부양을 하지 않고 있는 여자 대학생들과 이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각 세대가 자신의 부모세대에 대한 자식됨 불안과 부양책임을 조사한 연구(Myers & Cavanaugh, 1995)에서 양 세대 모두에서 부모노화불안이 높을수록 부양책임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 대학생들은 부양역할불안이 높을수록 부양책임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넷째, 본 연구자들이 검증하고자 하였던 자식됨 불안의 매개 혹은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다. 애착불안과 부양인지와의 관계에서 부양역할불안은 완전 매개의 역할을 하였으며, 애착회피와 부양인지의

관계를 부양역할불안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애착회피와 부양 의지와 관계에서 부모노화불안이 조절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애착불안이 부양역할불안을 완전매개하여 부양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애착회피가 부양역할불안을 부분매개하여 부양의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애착이 부양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부양역할불안에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확인한 애착과 부양관련 태도 간의 부적 관계를 설명해주는 핵심 개념이 자식됨 불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구의 고령화로 자녀들의 부모 부양 가능성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에서는 성인의 애착과 부모부양의식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드물다(조윤주, 2009; 이창식 & 김윤정, 2006). 서구에서도 애착, 자식됨 불안, 부양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아주 소수이며, 특히 본 연구는 자식됨 불안의 매개 및 조절 효과를 탐색한 최초의 연구이다.

성인 자녀와 부모의 애착이 부모부양의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을 보다 효율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부모 자녀 간 애착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Collins & Feeney, 2000)는 선행 연구자들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더욱이 Collins와 Ford(2010)는 부양자가 안정적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 이는 민감하고 반응적인 부양을 촉진시키고 이것이 다시 피부양자의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며, 결과적으로는 부양자와 피부양자 간 관계를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녀 부양자가 부양 의무를 부담스럽게 지각하는 상황에서 애착치료의 관점(Wallin, 2007)에서 공감적이고 수용적인 상담관계를 형성하여 상담자가 안전기지로

인식될 수 있다면 피부양자인 부모와도 새로운 관계 패턴을 형성할 수 있게 되어 부양자뿐만 아니라 피부양자에게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인 초기 애착이 자식됨 불안의 두 요인인 부양역할불안과 부모노화불안을 매개 또는 조절하여 부양의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담과 같은 심리중재 연구에서 매개 또는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이유는 수정하기 쉽지 않은 변인들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변화하기 쉬운 요인에 대한 개입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조화진, 서영석, 2011). 애착은 하나의 안정된 심리적 특성으로서 장기적인 부양 의지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개념이며 애착치료를 통해 수정이 가능하다는 하지만 새로운 내적작동 모델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비교적 장기간을 요구한다. 또한 Murray 등(1996)의 연구에서도 자식됨 불안은 지속적인 특성불안보다는 일시적인 상태불안과 상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식됨 불안이 애착과 부양의지를 매개 혹은 조절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부양의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부양자의 애착의 질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식됨 불안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부양역할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부양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성인 자녀가 부모부양의 책임이 주어졌을 때 이를 수행하지만 부양의지가 높을 경우 부양부담을 덜 경험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Wells, 1999),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애착과 자식됨 불안에 따라 부양의지를 높이는 심리적 중재를 제공한다면 자녀 부양자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애착불안의 경우에는 부양역할불안

이 부양이지를 완전매개하였고 애착회피는 부양역할불안이 부양이지를 부분매개하였다. 또한 애착회피와 부양이지와의 관계에서 부모노화불안은 조절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성인 애착의 두 차원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상이한 기제를 통해 부양이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선, 애착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우선시하면서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자기 초점적 내적작동모델(Pietromonaco & Barrett, 2000)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노화에 대한 불안보다는 부모에 대한 자신의 부양역할에 집중을 하게 되어 부양이지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애착 불안 수준이 높은 성인 자녀의 부양이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양역할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해 피부양자에게 제공되는 제도적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양역할을 보다 현실적으로 지각하도록 도와주고 부양에 대한 지식을 교육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애착회피 수준이 높은 경우,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내적작동모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모노화불안이 낮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유의미한 상관은 나타나지 않았고, 부모노화불안은 애착회피와 부양이지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회피가 부양이지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노화불안이 조절한다는 것은 애착 회피가 높더라도 부모노화불안의 정도에 따라 부양이지가 달라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애착회피가 높은 부양자에 대해서는 연로해져가는 부모에게 공감하고 연민의 감정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재가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의 노화는 필연적으로 막을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를 삶의 일부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애착회피가 높은 성인 자녀의 부양이지가 증진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대상에 있어서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부모 부양 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젊은 대학생 성인 자녀들로부터 얻어진 것이라는 제한이 있다. 자식됨 불안은 부모 부양이 압박한 중년기 성인 자녀에게 가장 잘 적용되는 개념인데, 본 연구의 표본인 대학생 집단은 부모 부양과는 먼 집단이므로 부모 부양에 대한 현실감이 없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예기적 부양이 압박한 집단인 30, 40대 성인 자녀들의 자식됨 불안(filial anxiety)과 애착을 조사하고 이것이 미래 부양에 대한 헌신 혹은 현재 부양 행위와 부양부담의 정도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부모가 건강하게 생존해있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와 같은 연구 표본의 동질성은 다른 인구학적 집단에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을 제한한다(Henderson, Gutierrez, Mayka, Garcia, & Boyd, 1993). 따라서 후속 연구들은 인구학적 지표들에서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일반화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생 표본이라고 하더라도 부모의 건강상태나 경제상태 그리고 부모와의 동거여부나 형제자매의 수 등이 부양이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Myers 등(1995)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미래 자신의 부양역할 능력에 대해 더 많은 불안을 보고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두 개의 차원으로 애착의 질을 측정하였는데, 이는 애착을 유형으로 구분한 선행 연구의 결과와의 직접적인 비교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애착을 유형으로 측정하여 자식됨 불안, 부양이지와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구 방법에 있어서 제한점은 본 연구의 결과가 횡단적 자료로부터 얻어진 것임으로 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추론할 수 없다. 애착, 자식됨 불안, 부양자의 관계를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종단 혹은 계열적 연구를 실시하여 본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인을 대상으로 자식됨 불안척도에 대한 추가적인 타당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자식됨 불안척도에 대한 참가자들의 반응 수준이 사회적 승인에 대한 염려와 어떻게 다른지 또한 자식됨 불안척도의 문항 자체가 불안 정서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불안과는 어떻게 관련되는지 혹은 자식됨 불안척도의 하위척도로부터 나온 점수가 부양에 대한 염려를 재는 유사한 심리 측정적 도구들과 상관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애착과 부양체계 모두는 진화의 산물로서 특유의 보상이나 만족과 관련이 있지만 친밀한 관계에서 부양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성인 애착 연구자들은 일차적으로 애착 행동 체계에만 초점을 두어 왔고, 보살핌 체계를 이해하는 데는 주목을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 그 결과,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애착 요구를 어떻게 통제하고 표현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혹은 부양과 애착 체계가 친밀한 관계에서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따라서 미래의 후속연구에서는 부양 경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부양자인 자녀의 애착뿐 아니라 피부양자인 부모의 애착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피부양자의 애착에 따라 부양에 대한 수용과 적응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김성현 (2004).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증적 요인분석과 문항 반응 이론

- 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경 (2004). 일본 재가 요보호노인과 부양자간의 관계의 질과 부양자의 정신건강. *한국 노년학*, 24(2), 129-144.
- 정경희 (2005). 2004년도 전국 노인 생활 실태 및 복지 요구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 조윤주 (2009). 성인기 애착 안정성에 관한 연구: 이성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부모의무감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8(1), 75-92.
- 조윤주, 이숙현 (2004).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와 부모 부양 의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3), 63-74.
- 조화진, 서영석 (2011). 성인애착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2), 471-490.
- 윤성은 (2002). 부양지원 경험의 보상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윤현숙 (2010).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KDI.
- 이창식, 김윤정 (2006). 청소년의 부양동기와 부양 의식간의 관계: 성별 거주지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3(6), 101-125.
- 이현지 (2007). 부양책임이 부양부담과 향후 부양 의지에 미치는 영향 -심신기능손상 노인의 부양가족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7(4), 1015-1030.
- 임춘희 (1988). 분가한 도시 장남 부부의 부양의식 유형: 세대 간 유대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정혜 (1992). 노부모가 지각하는 성인 자녀와의 결속도 및 갈등에 관한 연구. *성신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통계청 (2010). 2009 고령자통계, 통계청
- Abell, N. (2000). Assessing willingness to care for persons with AIDS: Validation of a new measure.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52(3), 123-131.
- Allen, K., Blieszner, R., & Roberto, K. (2000). Families in the middle and later years: A review and critique of research in the 1990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4), 911-926.
- Alspaugh, M., Stephens, M., Townsend, A., Zarit, S., & Greene, R. (1999). Longitudinal patterns of risk for depression in dementia caregivers: Objective and subjective primary stress as predictors. *Psychology and Aging*, 14(1), 34-43.
- Arbona, C., & Power, T. (2003). Parental attachment, self-esteem, and antisocial behaviors among African American, European American, and Mexic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1), 40-51.
- Baron, R., & Kenny, D.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lenkner, M. (1965). Social Work and family relationships in late life, with some thought on filial maturity. In E. Shanas & G. Streib (Eds.). *Social structure and the family: Generational relation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lieszner, R. (2006). A lifetime of caring: Dimensions and dynamics in late-life close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13(1), 1 - 18.
- Bradley, S., Miller, J., Murtha, B., Parkinson, J., & Phend Horst, S. (2008). Filial Anxiety Among Adult Children. *An Exploratory Study of Planning Behaviors*, 8, 37-45.
- Brennan, K., Clark, C., & Shaver, P. (1998). Self-reported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In J. Simpson &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 46-76). New York: Guilford Press.
- Brody, E., Johnsen, P., & Fulcomer, M. (1984). What should adult children do for elderly parents? Opinions and preferences of three generations of women. *Journal of Gerontology*, 39(6), 736-746.
- Carpenter, B. (2001). Attachment bonds between adult daughters and their elders mothers: Associations with contemporary caregiving.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6(B), P257-P266.
- Cavanaugh, J. C. & Kinney, J. M. (1994). *Marital satisfaction as an important contextual factor in spousal caregiving*. Presented at th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ersonal Relationships, Groningen, The Netherlands.
- Cicirelli, V. (1981). *Helping elderly parents:*

- The role of adult children*. Boston, MA: Auburn House.
- Cicirelli, V. (1983). A comparison of helping behavior to elderly parents of adult children with intact and disrupted marriages. *The Gerontologist*, 23 (6), 619-625.
- Cicirelli, V. (1988). A measure of filial anxiety regarding anticipated care of elderly parents. *The Gerontologist*, 28(4), 478-482.
- Cicirelli, V. (1991). Attachment theory in old age: Protection of the attached figure. In K. Pillemer, & K. McCartney (Eds), *Parent-child relations throughout life* (pp.25-42).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Cicirelli, V. (1993). Attachment and obligation as daughters' motives for caregiving behavior and subsequent effect on subjective burden. *Psychology and Aging*, 8(2), 144-155.
- Collins, N., & Feeney, B. (2000). A safe haven: An attachment theory perspective on support seeking and caregiving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6), 1953-1073.
- Collins, N. L., & Ford, M. (2010). Responding to the needs of others: The interplay of the attachment and caregiving systems in adult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7, 235-244.
- Crispi, E., Schiaffino, K., & Berman, W. (1997). The contribution of attachment to burden in adult children of institutionalized parents with dementia. *The Gerontologist*, 37(1), 52-60.
- Danhauer, S. McCann, J., Gilley, D., Beckett, L., Bienias, J., & Evans, D. (2004). Do behavioral disturbances in persons with Alzheimer's disease predict caregiver depression over time? *Psychology and Aging*, 19(1), 198-202.
- Feeney, J., & Hohaus, L. (2001). Attachment and spousal caregiving. *Personal Relationships*, 8(1), 21 - 39.
- Fingerman, K., Pitzer, L., Lefkowitz, E., Birditt, K., & Mroczek, D. (2008). Ambivalent relationship qualities between adults and their parents: Implications for both parties' well-being.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3(B): P362-P371.
- Finzi, R., Har-Even, D., Weizman, A., Tyano, S., & Shnit, D. (1996). The adaptation of the attachment styles questionnaire for latency-aged children. *Psychologia: Israel Journal of Psychology*, 5(2), 167-177.
- Fraley, R., & Shaver, P. (1997). Adult attachment and the suppression of unwanted though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080-1091.
- Fraley, R., & Waller, N. (1998). Adult attachment patterns: A test of the typological model. In J. A. Simpson & W. S. Rhod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 (pp.77-114). New York: Guilford Press.
- Fraley, R., Waller, N., & Brennan, K.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350-365.

- Gallo, L., Smith, T., & Ruiz, J.(2003). An interpersonal analysis of adult attachment style: Circumplex descriptions, recalled developmental experiences, self-representations, and interpersonal functioning in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71*(2), 141-182.
- Gaugler, J., Davey, A., Pearlin, L.,& Zarit., S. (2000). Modeling caregiver adaptation over time: The longitudinal impact of behavior problems. *Psychology and Aging, 15*(3), 437-450.
- Gillath, O., Shaver, P. R. Mikulincer, M., Nitzberg, R. E., Erez, A., & van IJzendoorn, M. (2005). Attachment, caregiving, and volunteering: Placing volunteerism in an attachment-theoretical framework. *Personal Relationships, 12*, 425-446.
- Griffin, D., & Bartholomew, K. (1994). The metaphysics of measurement: The case of adult attachment. In K. Bartholomew & D. Perlman (Eds), *Attachment processes in adulthood: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Vol. 5*.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Hart, J., Shaver, P., & Goldenberg, J. (2005). Attachment, self-esteem, worldviews, and terror management: Evidence for a tripartite security syst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6), 999-1013.
- Henderson, J., Gutierrez-Mayka, M., Garcia, J.,& Boyd, S. (1993). A Model for Alzheimer's Disease Support Group Development in African-American and Hispanic Populations. *Gerontologist, 33*(3): 409-414.
- Hooker, K., Monahan, D., Bowman, S., Frazier, L., & Shifren, K. (1998). Personality Counts for a Lot: Predictors of Mental and Physical Health of Spouse Caregivers in Two Disease Groups.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3B* (2): P73-P85.
- Karantzas, G., Evans, L., & Foddy, M. (2010). The role of attachment in current and future parent caregiving.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5B*(5), 573-580.
- Kim, Y., Carver, C., Deci, E., & Kasser, T. (2008). Adult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cancer caregivers: The mediational role of spouses' motives for caregiving. *Health Psychology, 27*(2, Suppl), S144-S154.
- Lopez, F., Mitchell, P., & Gormley, B. (2002). Adult attachment orientations and college student distress: Test of a mediational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4), 46-467.
- Magai, C., & Cohen, C. (1998). Attachment style and emotion regulation in dementia patients and their relation to caregiver burden.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3B*(3), P147-P154.
- McDonell, J., Abell, N., & Miller, J. (1991). Family members' willingness to care for people with AIDS: A psychosocial assessment model. *Social Work, 36*(1), 43-53.
- Mikulincer, M., & Orbach, I. (1995). Attachment styles and repressive defensiveness: The

- accessibility and architecture of affective memo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5), 917-925.
- Mikulincer, M., & Shaver, P. (2007). *Attachment in adulthood: structure, dynamics, and change*. New York: Guilford Press.
- Murray, P., Lowe, J., Anderson, H., Home, H., Lott, W., & MacDonald, S. (1996). Validity studies of the Filial Anxiety Scale. *The Gerontologist*, 36(1), 110-112.
- Myers, E., & Cavanaugh, J. (1995). Brief report: Filial anxiety in mothers and daughters: Cross-validation of Cicirelli's (1988) Filial Anxiety Scale.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2(2), 137-145.
- Nunnally, J. (1967).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McGraw Hill.
- Pietromonaco, P., & Barrett, L. (2000). The internal working models concept: What do we really know about the self in relation to other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4(2), 155-175.
- Pruchno, R., Peters, N., Kleban, M., & Burant, C. (1994). Attachment among adult children and their institutionalized parents. *The Gerontologist*, 49(5), S209-S218.
- Roberto, A., & Reynolds, G. (2001). The Meaning of Osteoporosis in the Lives of Rural Older Women.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22(6), 599-611.
- Schulz, R., & Williamson, G. (1991). A 2-year longitudinal study of depression among Alzheimer's caregivers. *Psychology and Aging*, 6(4), 569-578.
- Shaver, P., Belsky, J., & Brennan, K. (2000). Comparing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An examination of interview and self-report methods. *Personal Relationships*, 7, 25-43.
- Shaver, P., & Mikulincer, M. (2002). Attachment related psychodynamics.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4, 133-161.
- Sörensen, S., Webster, J., & Roggman, L. (2002). Adult attachment and preparing to provide care for older relatives.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4(1), 84-106.
- Stephens, M., & Franks, M. (2009). The impact of parent care on marital quality and well-being in adult daughters and sons. *The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4B(3). 339-347.
- Uhlenberg, P. (1996). The burden of aging: A theore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shifting balance of caregiving and care receiving as cohorts age. *Gerontologist* 3, 761 - 767.
- Wallin, D. (2007). *Attachment in psychotherapy*, Guilford Press. (김진숙, 이지연, 윤숙경 공역. 애착과 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2010.)
- Wang, Y. (2007). Attachment, filial piety, and mental health: Testing cultural influence on the attachment-mental health link among Taiwanese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Proquest document no. 1436371831).
- Wei, M., Mallinckrodt, B., Russell, D., & Abraham, T. (2004). Maladaptive perfectionism

as a mediator and moderator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depressive mood.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2), 201-212.

Wells, Y. (1999) Intentions to care for a spouse: Gender differences in anticipated willingness to care and expected burden. *Ageing and Family*, 5(2), 220-234.

Westmass, J., & Silver, R. (2002). The role of

attachment and preparing to provide care for older relatives.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4(1), 84-106.

1차 원고 접수: 2011. 10. 11

수정 원고 접수: 2011. 11. 14

최종 게재 결정: 2011. 11. 17

Adult Attachment and Willingness to Provide Parental Care among College Students: Effects of Filial Anxiety

Min Hee Kim Choo Yon Hong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filial anxiety and attachment quality on the willingness to provide parental care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242 College students (108 males and 242 females) in Seoul and Kyunggi Province were surveyed. The mediational and moderational effect of two dimension of filial anxiety on attachment and willingness to provide parental care were investigated. Finding suggest that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xiety and willingness to provide parental care was completely mediated by anxiety to meet perceived demands of caregiving role(FAA) and moderated by anxiety about parents welfare.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voidance and willing to provide parental care was partially mediated by anxiety about parents welfare(FAB). Implication for caregiver burden and limitation of the present study are discussed.

Keywords: college students, caregiving willingness, filial anxiety, attachment anxiety, attachment avoidance